

본 자료는 2017년 5월 1일 [월]에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7. 5. 1 [월]	담당부서	조사분석실
담당자	김태균 조사분석실장 031-231-3450, 김현진 선임연구원 031-231-3451		

정보통신공사업 경기실사지수(BSI) 조사 결과

< 2016년 4분기 경기평가 및 2017년 1분기 경기전망 >

- 2016년 4분기 정보통신공사업 경기평가 : 85.0p 기록, 전 분기 보다 12.4p 상승
- 2017년 1분기 정보통신공사업 경기전망 : 72.6p로 조사되었으며, 전 분기 평가 보다 대폭[12.4p] 하락

-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(KICIKI, 원장 임주환)은 국내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을 대상으로 분기별 ‘정보통신공사업 경기동향조사’ (현 분기 평가 및 다음 분기 전망)를 수행, 경기실사지수(BSI)를 집계·발표하였다.
- 정보통신공사업 경기실사지수(BSI)는 정보통신공사업의 현재 경기에 대해 진단하고, 향후 경기 변화에 공사업계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·분석하고 있다.
 - 본 조사는 각 지역별 정보통신공사협회 시·도회 운영위원 및 제도 개선위원 등의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.
- ※ 경기실사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하며, 100이상은 경기가 낙관적, 100미만은 부정적으로 판단한다.
- 2016년 4/4분기 정보통신공사업 경기 평가는 85.0p로, 3/4분기에 비해 12.4p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.
 - 국내수주 부진 등 2016년 3/4분기 정보통신공사업의 체감경기 급락에 따른 영향요인이 조금 완화됨과 동시에, 공사발주량 증가라는 계절적 영향이 반등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.
 - 건설업의 경우 2016년 4/4분기(12월 기준) 경기 평가가 90.6p, 전문 건설업은 61.6p로 나타났다.

- 2017년 1/4분기 정보통신공사업 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2016년 4/4분기의 경기 평가 대비 12.4p 하락한 72.6p로 나타나, 체감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 - 정보통신공사업 시장규모에 비해 업체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정보통신공사업자 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, 공사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기업의 체감경기는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.
 - 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의 2017년 1/4분기 경기전망치는 각각 70.0p, 53.5p로 조사되었다. 이 또한 전년도 연말에 비해 공사발주 물량이 감소하는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.
- 2016년 4/4분기 정보통신공사업 세부항목별 지수를 3/4분기와 비교 해서 살펴보면 총 8개 항목 중 5개 항목(원도급 · 하도급 · 자금조달 · 공사대금회수 · 자재수급)은 상승, 3개 항목(인력고용 · 인건비수준 · 자재가격)은 하락으로 나타났다.
- 정보통신공사업 경영상의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‘수주활동(35.8%)’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, 그 다음으로 수주활동으로 인한 ‘경쟁심화(25.0%)’로 나타나 현재 많은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한정된 공사 물량 내에서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[그림-1] 2016년 및 2017년 정보통신공사업 경기실사지수 분기별 실적평가 및 전망

